

이야기가 있는 文學風景



第1部 幸福의 傳染에 對하여

Pandemic



CAFE 情談

- [페스트] 감염된 쥐나 벼룩을 통해 전파. 1347~1351 사이에 유행. 유럽 인구 중 약 2,500만~5,000만(1/3~60%) 사망.
- [콜레라]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 전파. 제1차 팬데믹(1817~1824). 제2차 팬데믹(1829년), 제3차~제6차 팬데믹, 제7차 팬데믹(1961~현재)
- [코로나]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병. 감염자의 비말, 에어로졸 또는 오염된 표면과의 접촉을 통해 전파.



幸福의 傳染 _社會的 傳染

나의 행복 확률	
1단계-나와 친구	약 15% 증가
2단계-친구의 친구	약 10% 증가
3단계-친구의 친구의 친구	약 6% 증가

_ 크리스타키스 Nicholas Christakis & 제임스 파울러 James Fowler

CAFE 情談

- 행복은 3단계까지 전염된다.



名心寶鑑

與善人居면 如入芝蘭之室^{하여} 久而不聞其香^{이나} 即與之化矣^요

與不善人居면 如入鮑魚之肆^{하여} 久而不聞其臭^나 亦與之化矣^니

丹之所藏者^는 赤^{하고} 漆之所藏者^는 黑^{이라} 是以^로 君子^는 必慎其所與

處者焉^{이니라}

_ 『명심보감』 교우편

CAFE 情談

- 착한 사람과 같이 살면 향기로운 지초와 난초가 있는 방 안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오래 되면 그 향기를 맡지 못하나 곧 더 붙어 그 향기와 동화되고, 착하지 못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비린내 나는 생선 가게에 들어 간 것과 같아서 오래 되면 냄새를 맡지 못하나 또한 더불어 그 냄새와 동화되나니, 붉은 것을 지니고 있으면 붉어지고 검은 옷을 지니고 있으면 검게 된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함께 있는 곳을 삼가야 한다.



第2部 글 香氣 머무는 詩의 뜰

名詩 鑑賞





名詩 鑑賞

유월이 오면 하루 종일
향기로운 마른 풀 위에 내 사랑과 함께 앉아
산들바람 부는 하늘에 흰 구름이 짓는
햇살 눈부신 높은 궁전들을 바라볼 거야

그녀는 노래하고, 나 그녀 위해 노래를 짓고
하루 종일 달콤한 시들을 읽어야지
아무도 모르게 건초로 지은 우리 집에 누우면
오, 인생은 즐거워라
6월이 오면

..로버트 브리지스 「6월이 오면」

CAFE 情談

- 감각적 이미지의 향연 · 소박한 사랑과 여유 ·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아름답다.
-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낭만을 극대화 한다.
-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시 멈춰 서서 곁에 있는 소중한 존재와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라고 속삭이는 듯하다.



글脈의 흐름을 짚다

- 맥파 문학상 심사 규정표 -

순	참가 번호	작품명	서술 능력 (20)	시상 전개 (20)	비유 압축 (20)	문학성 독창성 (25)	맞춤법 (10)	규정 준수 (5)
1								
2								
3								
4								
5								

詩想展開에 對하여!

전개 방식	핵심 원리	한 줄 요약
시간 흐름	아침에서 저녁으로, 봄에서 겨울로	흘러가는 시간에 감정을 엮음
시선/공간 이동	멀리서 가까이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움직이는 눈길과 발길을 따라감
선경후정 先景後情	풍경 먼저, 감정은 나중에	날씨가 흐리네, 마음이 울적하다
수미상관 首尾相觀	처음과 끝을 똑같이	처음 했던 말을 마지막에 다시 강조
대립적 심상 관계	차이를 극대화하여 주제를 돋보이게 하는 시각적, 정서적 착시 효과	어두운 밤하늘이 깊을수록 별빛이 더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원리

CAFE 情談

- [시상의 전개]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시상)을 시의 시작부터 끝까지 논리적, 정서적, 혹은 구조적으로 펼쳐 나가는 과정. 시의 내용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독자에게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의 설계도**.



敍述의 숨결을 살피다

[문학적 서술 능력 향상 퀴즈]

Q1. 다음 중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A. 시상 전환은 시적 긴장감을 낮추어 독자의 편안함을 유도하는 장치이다.
- B. 결말은 독자가 상상력을 발휘할 여백을 남겨 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C. 선형적 전개를 주로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을 따른다.
- D. 시상의 확장은 구체적 사물에서 보편적 의미로 나아가는 과정을 포함한다.

CAFE 情談

- [정답] ㉠ 시상의 전환은 오히려 시적 긴장감을 높이거나 시의 분위기를 반전시켜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敍述의 숨결을 살피다

[문학적 서술 능력 향상 퀴즈]

Q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 A. 사물을 묘사할 때 가장 화려한 수식어를 사용할 수 있다.
- B. 독자에게 익숙한 구조를 제공하여 이해와 몰입을 돕는다.
- C. 시의 주제를 가장 강렬하고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D. 시적 화자의 내면 심리를 가장 복잡하게 묘사할 수 있다.

CAFE 情談

- [정답] ㉞ 시적 화자의 내면 심리를 가장 복잡하게 묘사할 수 있다.



敍述의 숨결을 살피다

[문학적 서술 능력 향상 퀴즈]

Q3.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 전개할 때, 심사위원이 주목하는 것은?

- A. 각 공간에 대한 얼마나 정확한 묘사를 했는지
- B. 공간 이동의 물리적 거리와 속도
- C. 사용된 어휘의 화려함
- D. 각 공간에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적 변화와 의미 연결

CAFE 情談

- [정답] @ 공간의 변화와 함께 화자의 내면이나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관건이다.



敍述의 숨결을 살피다

문학적 서술 능력 향상 퀴즈[4/10]

Q4. 다음 중 「인과적 전개」 예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묘사함.
- B.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점심을 먹고, 저녁에 잠이 드는 모습.
- C.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변화를 순서대로 나열함.
- D. 들꽃을 보고 문득 잊고 지냈던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며 슬픔을 느낌

CAFE 情談

- [정답] ㉠ 외부 대상(들꽃)이 화자의 내면적 변화(그리움/슬픔)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敍述의 숨결을 살피다

[문학적 서술 능력 향상 퀴즈]

Q5. 시의 결말 부분에서 「여운」을 남기기 위해 피해야 할 태도는?

- A. 구체적인 이미지로 상황을 마무리함.
- B. 시의 메시지를 교훈적으로 직접 제시하고 강조함.
- C. 주제를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게 함.
- D. 의문형으로 문장을 맺어 질문을 던짐.

CAFE 情談

- [정답] ⑥교훈을 직접 제시하면 독자의 상상력이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어 감동이 반감될 수 있다.
- [구체적] 문학에서 구체적 이미지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각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Ex: 지는 해가 붉은 핏물처럼 강물에 풀리고 있었다



敍述의 숨결을 살피다

[문학적 서술 능력 향상 퀴즈]

Q6 시상 전개에서 「전환」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

- A. 사용하는 시어를 이전보다 더 쉽게 바꾸는 과정
- B. 시적 화자가 장소에서 이동하게 함.
- C. 시적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시선의 변화를 통해 주제를 심화함.
- D. 시의 전체 분량을 늘리는 과정

CAFE 情談

- [정답] © 전환은 시적 흐름을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주제적 깊이를 더한다.



敍述의 숨결을 살피다

문학적 서술 능력 향상 퀴즈

Q7. 구체적 사물에서 보편적 의미로 나아가는 전개는 무엇인가?

- A. 시상의 확장
- B. 시상의 파편화
- C. 시상의 반복
- D. 시상의 축소

CAFE 情談

- [정답] ㉠ 개별적인 사물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삶이나 철학적 가치를 이끌어내는 전개 방식이다.



敍述의 숨결을 살피다

문학적 서술 능력 향상 퀴즈

Q8. 시상 전개 of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 A. 가능한 많은 비유와 상징을 넣는다.
- B. 단어의 수를 매 연마다 일정하게 맞춘다.
- C. 유명한 시인들의 문장을 인용하여 시작한다.
- D. 첫 줄과 마지막 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구성한다.

CAFE 情談

- [정답] @ 시의 시작과 끝이 논리적 혹은 정서적 고리를 가지고 연결될 때 시는 하나의 완성된 세계가 된다.



敍述의 숨결을 살피다

[문학적 서술 능력 향상 퀴즈]

Q9. 독자가 시를 해석할 때 「여백」을 활용하도록 돕는 장치는?

- A. 시의 주제를 제목으로 정함.
- B. 연을 구분하지 않고 한 문단으로 씀.
- C. 모든 은유를 직유로 풀어 설명함.
- D. 상황을 암시하는 이미지로 시를 마무리함.

CAFE 情談

- [정답] ㉠ 이미지는 독자로 하여금 시적 상황을 시각적으로 상상하게 하여 해석의 여지를 열어둔다.



敘述의 숨결을 살피다

[문학적 서술 능력 향상 퀴즈]

Q10. 시상 전개 과정에서 「심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A. 독자에게 직접적인 교훈을 주어 깨달음을 주는 것.
- B. 대상을 관찰하는 단계에서 내면적 성찰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
- C. 더 어려운 한자어를 사용하여 격을 높이는 것.
- D. 문장의 길이를 점점 길게 늘여 나가는 것.

CAFE 情談

- [정답] ⑥ 표면적 관찰에서 존재의 본질이나 감정의 깊은 곳으로 파고드는 과정이 심화이다.



第3部 詩人의 노래 餘白의 노래

2606-별내 詩香이 피어나는 날



조용히 내리는 비에
수락산 자락 멀어지니
운무인지 안개인지

초여름 가뭄 끝에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어
자연을 미소 짓게 한다

발코니 난간 위로
조롱조롱 맺힌 빗방울
반짝 반짝 빛을 발한다

만상의 섭리 속에
내 영혼을 곱게 적셔
마음 깊이 에너지를 심는다

정원 목련은
함초롬히 비를 머금어
소나무와 속삭이듯 사랑인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떠나려는 계절과
아쉬운 작별을 고하겠지

계절과 계절 사이
어떤 그리움을 간직하고
어떤 추억을 남겨둘 수 있을까

이선옥 「초여름의 단비」

- 비 오는 풍경이 마치 눈앞에 그려지듯 선명하고 따뜻하게 느껴진다.
- 미시적(사람의 감각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 풍경에서 거시적(사람의 감각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 섭리로 나아가는 구성이 훌륭하다.
- 자연을 대하는 화자의 다정한 시선이 마음을 울린다.

밤사이
대지를 촉촉이 적시고
아침 햇살이
은빛으로 창가에 기대어 선다

자연 속에서 맞는 상쾌한 아침
매일의 평온함이 감사하고 소중하다

연둣빛 새순은 짙은 녹음이 되어
초록 물결로 출렁이고
싱그러운 풀내음은
긴 숨을 타고 가슴 깊이 파고든다

봄과 여름이 오가는 길목
꽃들은 저마다 고유한 빛깔과 향기로
벌과 나비를 유혹하고
사람의 발길을 머물게 한다

수십 번 돌고 돈 사계절
해마다 다르게 보여주는 것인지
내가 다르게 느끼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산천초목을 품어 안고
사계절을 어르고 달래며
천하를 다스리는 자연의 섭리

그 너른 품속에서
더불어 숨 쉬며
살아가고 있음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이필녀 「산천초목의 품에서」

- 시각(은빛 햇살, 초록 물결), 후각(싱그러운 풀내음)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한 공감각적 즐거움을 준다.
- 자연을 단순히 풍경으로 보지 않고, 삶을 이끄는 스승으로 대우하는 겸손함이 느껴진다.
- 생명력의 예찬을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삶의 생기를 다시금 북돋게 한다.

칠십 평생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희로애락 속에 지나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흘러간 세월을 딛고
다시 마주한 여름은
고단했던 시간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유월의 문턱에 서니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은
지나온 계절만큼 깊어진 인생의 무게 때문이리라

이제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새롭게 깨어나는 여름의 소리
대지를 채우는 싱그러운 기운 속에
묵묵히 내 삶을 맡겨본다

윤선화 「칠십의 유월」

- 지나온 칠십 년의 삶을 여름의 따스함으로 어루만지는 모습에서 인생을 관조하는 시인의 깊이가 느껴진다.
- 삶의 연륜이 쌓여야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깊이 있는 고백이다.
- 자연의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투영하는 것에서 오는 안온함이 독자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

눈부신 오후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나선다

숲으로 난 길 위로
키 큰 소나무와 담쟁이덩굴이
초록 땀방울을 떨구고
바람은 숲의 향기를 가득 실어 내게 건넨다

뿌얀 산수국, 노란 썸바귀, 보라색 등꽃은
숲의 기쁨으로 피어나고
공지 파란 새 두 마리의 지저귀는
흐르는 시냇물 소리와 어우러져 숲에 머문다

유월의 숲은 말 한마디 없이도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

이름 모를 풀벌레의 합창과 솔바람
땅에 떨어진 아기 솔방울
산책 나온 갈색 강아지의 발걸음과
잎새마다 이슬 펜 거미 궁전까지

나는 숲속 친구들과
하나가 되어
관객이자 풍경 속 한 장면이 되었다

초록으로 눈과 마음을 물들이며
숲이 건네는 위로를 받아 안고
유월의 숲 한가운데 서 있다

숲은 오늘도
녹음 짙은 계절의 중심에서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한진 「유월의 숲에서」

- 숲의 소리와 향기가 바로 곁에서 느껴지는 듯하다.
- ‘풍경 속 한 장면이 되었다.’라는 대목은 자연과 인간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수준 높은 문학적 성취이다.
- 눈부신 햇살 속에서 숲의 위로를 받고 생명의 노래로 마무리되는 구성은, 마치 짧은 산림욕을 다녀온 것 같은 정서적 정확을 선사한다.

질푸른 초록
버드나무 꼭대기에
깃발 꽃뚝 여름이 왔다

오후의 땡볕이 시야를 붉게 물들이니
여름도 잠시 즐고
더운 바람 지나간 자리
버들잎 물가로 길게 드리운다

갑자기 천둥 번개 치고 장대비 쏟아지니
놀란 여름 자연의 섭리를 따라
순리대로 마음 모아
비로소 여름의 문턱에 선다

장애란 「여름의 문턱에서」

- 「버드나무 꼭대기에 깃발 꽃뚝 여름」 초여름이 시작되는 순간을 아주 강렬하고 시각적으로 잘 포착한 뛰어난 비유이다.
- 날씨의 변화를 계절의 속도로 체감하는 작가의 세심한 관찰력이 돋보인다.
- 마지막 연의 「여름의 문턱에 선다」는 표현은 계절의 변화를 차분하게 맞이하는 화자의 정갈한 마음가짐을 잘 드러내고 있다.

썩 반갑지는 않지만 너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존재 네가 오는 날이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덩달아 내 마음도 흐려진다 네가 없는 날엔 세상이 밝아지고 나의 마음도 환하게 갠다 네가 지나간 자리마다 싱그러운 물기가 차오르고 세상은 한결 깨끗해진다 나무와 꽃잎들은 오랜만에 샤워를 하고 대지의 식탁 위에서 맛있게 식사를 한다 너는 우리와 자연에 참으로 소중한 존재

하지만

너무 자주 오지는 마렴 너무 많이 한꺼번에 쏟아지지도 말아다오 어두운 밤에 왔다가 태양이 솟아오를 즈음이면 그 어둠과 함께 조용히 떠나 주기를, 네가 머문 자리마다 빛나는 태양이 반짝이며 세상을 밝히고 그 빛이 내 마음까지 환히 비추기를, 나는 오늘도 구름 속으로 나의 작은 바람을 띄워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려 보낸다

정해랑 「비에 보내는 편지」

- 비를 반기지 않는다는 솔직한 고백으로 시작해서 읽는 이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시적 몰입도를 높였다.
- 비를 자연의 소중한 식사와 샤워로 묘사하여, 비가 가진 필수적인 생명력을 다정하게 인정했다.
- 밤에 오길 바라는 소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비와 조화롭게 공존하고 싶은 작가의 배려를 잘 드러냈다.



文章 그늘막

Q 詩文에서 文章符號를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사용 할 수 없는지?

문장부호 사용하지 않는 시	문장부호 적극 사용하는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미를 다의적으로 만들기 위해• 리듬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여백과 행갈이를 문장부호처럼 사용하기 위해• 독자의 해석 참여를 늘리기 위해• 현대시에서 널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듬과 호흡을 정확히 통제하기 위해• 의미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산문적 서술, 시적 긴장을 느끼게 하기 위해• 특정 감정(망설임, 놀람)을 표현하기 위해

CAFE 情談

- [좋은 시를 짓기 위해서]
문장부호를 써야 한다거나 쓰지 말아야 한다고 단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 시에서 쉼표 하나가 정말 필요한가? 이 마침표가 시의 숨결을 살리는가, 죽이는가? 필요하면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과감히 지운다.

유월이 오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젖어든다 아들과 딸을 처음 품에 안았던
그 계절 작고 여린 생명을 마주하며 설렘과 기쁨 그리고 막막한 책임감 속에서
비로소 부모의 길을 시작 했었지

돌아보면 참 빠른 세월이었다 서툰고 부족했던 날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저마
다의 빛으로 자라 주었고 그 곁을 함께 걸을 수 있었음에 깊이 감사한다
이제 아들은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내 품에는 어느새 6개월 손주가 안겨
있다 그 맑은 눈빛과 작은 웃음을 바라보면 오래전 아들과 딸을 처음 안았던
순간이 다시 살아난다

- 생명은 이렇게 사랑을 이어가고 사랑은 세월을 건너 다시 꽃을 피운다 아이들
의 성장과 손주의 존재는 내게 벅찬 선물
짙어가는 유월의 초록처럼 마음은 더욱 깊어지고 감사와 희망은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조현순 「어느 6월의 기록」

- 자녀를 키우던 시절과 손주를 안은 현재를 연결하여, 생명과 사랑이 대물림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 지나온 서툰했던 날을 회상하며 자녀의 성장을 온전히 기뻐하는 모습에서, 삶을 관조하는 작가의 따뜻한 인품이 느껴진다.
- 누구나 겪는 부모의 길을 진솔하고 서정적으로 표현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밤공기 가르느 침 없는 개구리 울음소리 노래하는 연못가를 지나니 숲은 서늘한 정기를 머금고 깊은 고요 속에 잠든다

• • 동실 떠오른 보름달은 길동무가 되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길을 밝히고 어두운 숲길 나뭇가지 끝엔 거미줄이 내려앉아 길을 막아선다

• • 흙 향기 머금은 맨발의 길은 고요하고 어찌다 마주치는 밤길 동무마저 반갑다 수많은 발길에 반질반질 닳인 오솔길마다 정겨운 이야기를 나눈다

나뭇잎 사이로 달님은 숨바꼭질하며 밤의 정적과 고요한 자태를 드러내고 어둠 흐르는 숲의 바람결은 깊은 명상으로, 여름밤 서늘한 정기는 나를 도인의 길로 이끄니 이것이 바로 여름밤 산책의 별미로다

신은주 「여름밤의 산책」

- 개구리 울음소리(청각)와 흙 향기(후각), 서늘한 밤공기(촉각)를 통해 여름밤의 정취를 감각적으로 극대화했다.
- 달님을 길동무로 삼고 숨바꼭질 하는 모습에서 자연을 대하는 화자의 다정하고 순수한 동심이 돋보인다.
- 단순한 산책을 별미라는 단어로 정의하며 산책의 기쁨을 고급스럽고 여운 있게 마무리한 점이 아주 좋다.

바닥에 매실이 우수수 쏟아졌다
차로, 장아찌로, 청으로
저마다 제 몫의 쓸모를 찾아가는 몸짓들

문득 돌아본다
나는 한평생
누군가에게 기억될 만한 사람으로 살았는가

지나온 날들은 짧아 저물어가는데
타인의 기억이 다 무슨 소용이라
내가 나를 알아주면 그 뿐인 것을

힘들었지
수고했다
참 잘 살았다
내 등을 가만히 쓸어 내리며
가볍게 웃음 짓는다

이재순 「매실 떨어지는 오후」

- 떨어진 매실에서 삶의 쓸모와 의미를 길어 올린 사유의 확장이 훌륭하다.
- 스스로에게 건네는 참 잘 살았다는 고백은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
- 곡진 삶을 가벼운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의연한 마무리가 인상적이다.



열두 살 어린 임금 단종
열다섯 어린 왕비 정순왕후

그들 앞에
조카의 왕위를 노리던 수양대군
단종 즉위 삼 년 만에
마침내 왕위를 찬탈했다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고
정순왕비는 관비가 되어
궁궐 밖으로 쫓겨났다

열아홉 노산군이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하자
정순왕후는 영월을 향해 통곡하며
평생 소복으로 단종의 명복을 빌었다
거친 염색물에 짓무른 손으로 모진 삶을 이어갔다

역적 노산군의 죽음을 거두는 일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지만
영월 호장 엄흥도는 밤 몰래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깊은 산속에 매장하였다
그리고 그의 무덤은 잊혀졌다

이백 사십 여 년의 세월이 흘러
노산군은 단종으로, 정순왕후는 왕비로 복권되어
장릉莊陵과 사릉思陵으로 단장되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이야기로
단종과 정순왕후는 세상으로 다시 나왔다
인적이 뜸했던 정순왕후 사릉思陵에
발길이 이어진다

단종을 향한 그리움처럼
금낭화는 무리지어 피었고
모란은 그녀의 서글픈 소복素服인 양
고개 숙여 바람에 하늘거린다.

백인숙 「그리움이 핀 자리」

- [역사적 서사의 압축] 비극적 역사를 서사시 형식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인물의 운명을 생생히 전달하고 있다.
- [깊은 연민의 묘사] 염색물과 소복의 이미지를 통해 정순왕후의 모진 삶과 고난을 애뜻하게 그려냈다.
- [아름다운 대비] 금낭화와 모란으로 정순왕후의 그리움과 절개를 대비시킨 마지막 연이 매우 인상적이다.

꽃 시절, 치열하게 피고 진 뒤
질푸른 세상 앞에 선 유월
땀방울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이여

우리의 열정이 찬란한 열매로 맺혔으니
녹음 속 바람은 승리의 계절을 알린다

꽃은 지고 없어도
가슴엔 꽃향기 피어오르고
우리의 열정이 찬란한 열매로 맺혔으니
녹음 속 바람은 승리의 계절을 알린다

그 시절 순간마다 행복을 누렸네
어깨 나란히 한 정겨운 얼굴들
수고했어요
서로를 토닥이며 따스한 목소리
환하게 웃음 짓던 날

짧고도 강렬했던 유월의 바람
한마음 한뜻으로 일구어 낸
내 생애 한 편의 축제였네

세월 흘러 청춘은 아득해져도
유월의 푸른 바람 불어오면
여전히 가슴이 뒹다네

항상속 「유월의 축제」

- 과거의 치열한 노력을 승리의 계절로 연결해 삶의 과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점이 좋다.
- 청춘이 지나도 푸른 바람에 다시 가슴이 뒹다는 고백에서 삶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 전체적으로 계절의 흐름과 감성이 잘 살아있다.

내리찍는 햇빛이 뜨거워
녹음 짙은 나무 아래로
몸을 숨겼다

눈치 빠른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쉬어 가라 속삭인다

무안한 마음에 고개 들어 본 초록
오랜만이라며
눈인사 먼저 건네고

봄날마다 꽃 선물 안겨주던 그 님이
오늘도 나를 반긴다.

높은 곳에서 무조건 내어주는 사랑은
부모님의 품처럼 깊고 포근하다

들꽃은 꽃대로
들풀은 풀대로

제 이름의 향기와 푸르름으로
들녘을 채운다.

누가 더 곱고
누가 더 보잘것없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서로 기대어 바람을 흔들고
함께 햇살을 품으며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풍경을
완성하고 있다

세월이 깊어 갈수록
걸치레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삶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산책길은 속삭인다

나도 언젠가는 저 나무처럼
쉽이 되어주는,
그늘이 어우러진,
들판의 꽃이 되고 싶다

이은순 「초여름 산책」

- 나무와 바람을 친구처럼 묘사하여 산책길의 정취를 친근하게 잘 그려냈다.
- 있는 그대로의 삶이라는 주제를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시의 깊이를 더했다.
- 움직일 수 없는 자연의 모습을 서로 가까이서 기대어 의지한다는 말에서 깊은 사유가 느껴진다.

양지바른 곳에 심긴 느티나무
대지를 향해 힘차게 발을 뻗고
두 팔 벌린 가지로 하늘을 떠받들며
● 묵묵히 마재 마을의 지붕이 되었네

● 눈보라 비바람에 꺾이고 갈라진 꺾질은
●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낸 훈장
● 그 속에서도 매년 푸른 잎을 피워내니
● 어찌 장엄한 춘광 춘색 아니더냐

● 한여름 더위에 지친 나그네에게는
● 하늘을 가리는 넉넉한 그늘이 되어주고
● 마을 사람들에게는 어머니 품처럼
●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꽃 피우던 곳이었어라

두꺼운 등걸에 가만히 손을 얹으면
오백 년 세월이 맥박처럼 뛰어오른다

임진왜란도, 한국 전쟁도 지나갔건만
봉선사 느티나무 끄떡없이 그 자리에 서 있네

오늘도 물소리 들으며
우뚝 선 당신
나라의 안녕과 가족의 건강을 품어 안으니

당신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목이어라

최진식 「봉선사 느티나무」

- 500년의 시간을 묵묵히 버텨온 느티나무를 통해, 전쟁과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견뎌낸 강인한 생명력을 깊이 있게 그려냈다.
- 나그네의 쉼터이자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꽃이 피어나는 공간으로서 나무를 묘사하여, 나무의 인자한 품성을 잘 드러냈다.
- 느티나무를 단순히 식물이 아닌, 마을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기원하는 영적 존재로 격상시킨 점이 시의 품격을 한층 높여준다.



어느새 달력은
절반의 길을 지나와 있다

새해 첫날 바라던 꿈은
어떤 것은 이루어졌고
어떤 것은 아직 먼 길 위에 있다

바쁘게 걸느라 놓친 풍경들
마음 한구석에 담아둔 아쉬움도

하지만 시간은
후회를 묻기보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먼저 건넨다

칠순을 넘긴 나이에
배워야 할 것은 여전히

건네야 할 따뜻한 말과
함께할 사람들도 곁에 있다

남은 절반의 시간은
속도를 더하는 길보다
하루를 정성껏 살아내며
작은 행복을 길어 올리는 시간이기

저녁놀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빛이니

나는 다시 신발 끈을 고쳐 맨다
감사와 희망을 품고
남은 길을 차분히 걸어가려 한다

최정기 「절반의 길 위에서」

- 나이를 잊고 배움과 나눔을 갈망하는 모습에서 인생을 대하는 겸손하고도 열정적인 깊이가 느껴진다.
- 성취를 위한 속도보다는, 하루를 정성껏 살아내며 작은 행복을 발견하려는 삶의 지혜가 큰 울림을 준다.
- 저녁놀을 내일을 위한 준비로 바라보는 긍정적인 태도가, 지나온 시간과 다가올 시간 모두를 아름답게 빛내고 있다.



THE END

Closeing Ment